

07

누가 고통에 응답하는가? 확장된 규범활성화모형을 통한 아동빈곤 기부 의도 연구: 기부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하영*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박통합과정

•이자연**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본 연구는 위험인식이 책임귀속과 개인규범을 순차적으로 거쳐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규범활성화모형을 기반으로,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기부 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범활성화모형을 빈곤아동 기부 맥락에 적용하되, 기부 효능감을 매개 변인으로 추가해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연쇄매개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N = 204),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빈곤 위험 인식은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경로를 통해 기부 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위험 인식이 책임귀속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개인규범이 자신의 기부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효능감 인식(기부 효능감)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기부 의도를 강화하는 순차적 매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규범활성화모형에서 제안하듯 위험 인식이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매개 변인들이 단계적으로 활성화될 때 기부 의도가 강화됨을 보여준다. 특히 효능감 인식이 기부 의도의 선행 조건으로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규범활성화모형이 기부 맥락에도 유의하게 적용됨을 검증하였으며, 책임귀속과 개인규범에 더해 기부 효능감의 순차매개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존 모형을 확장했다는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실제 기부 유도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실무에서 규범 의식 형성뿐 아니라 효능감 인식을 강화하는 전략적 메시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투 고 일 : 2026년 02월 28일
▶심 사 일 : 2026년 03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6년 04월 20일

주제어 : 아동빈곤, 기부 의도, 규범활성화모형,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

*제1저자 (oh0404ok@hanyang.ac.kr)

**교신저자 (lee22@hanyang.ac.kr)

1. 서론

아동빈곤은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지속되어 온 주요 사회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15.1%로 나타났다으며, 한부모 가구의 경우 26.1%로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이는 가구 구조에 따른 소득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며, 상당수 아동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은 단순한 소득 부족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행연구는 아동빈곤이 교육, 건강, 영양, 주거, 사회적 참여 기회의 제한 등 복수 영역에서의 결핍과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Gordon et al., 2003; UNICEF, 2011). 특히 아동기는 기본적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에서 빈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아동기의 다차원적 박탈 경험은 교육 성취와 건강, 정서적 안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김경준, 2026). 이는 아동기 빈곤이 세대 간 불평등의 재생산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 또한 아동빈곤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왔다.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과 2002년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협하는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명시하였다(김은주, 2015). 한국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소득이전과 사회보장정책만으로는 취약 아동이 직면한 다차원적 결핍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OECD, 2023; UNICEF, 2011).

이러한 한계 속에서 개인의 기부는 공공정책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보조금, 자체 수익사업, 민간 후원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운영되며, 이 가운데 민간 후원금은 조직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재원으로 분석된다(김미숙·김은정, 2005). 이에 따라 각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들은 회원 가입 및 후원을 유도하는 광고 캠페인을 활발히 벌여왔다. 개인의 기부 행동 및 결심을 이끌어내는 캠페인은 공익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Schwartz(1977)의 규범활성화모형은 개인이 친사회적 행동을 결심하기까지 결과인식, 책임 귀속, 개인규범 활성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개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개인규범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부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모금가협회의 기부문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모금단체에 대한 신뢰가 기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났다(윤고은, 2019). 이는 기부 행동이 단순한 도덕적 공감이나 의무감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예측에 의해 매개됨을 보여준다.

실제로 잠재적 기부자들은 모금을 하는 비영리조직이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부에 참여한다((노연희 · 이민영, 2022). 반대로 조직에 대한 불신은 기부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손원익 · 박태규, 2008).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형성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 즉 기부 효능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행동 의도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빈곤과 같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의 경우, 개인은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기여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책임감에 기반한 도덕적 의무감, 즉 개인규범이 형성되어도 자신의 기부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효능감 인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기부의도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아동빈곤의 객관적 수준이나 정책 효과 분석에 주로 집중해 왔으며, 개인의 기부 행동을 이끌어내는 심리적 요인들과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아동빈곤을 다차원적 박탈이 중첩된 구조적 위협으로 이해하고, Schwartz(1977)의 규범활성화모형을 보완, 확장해 기부 효능감이 개인규범과 기부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연쇄매개모형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쳐 기부의도에 이르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공익 캠페인 실무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아동빈곤 위험 인식

위험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단순한 객관적 확률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Slovic, 1992). 동일한 위험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판단과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위험 인식은 부정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개인이 내리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전문가 중심의 통계적 판단보다 일반 대중이 일상 속에서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김영옥, 2014). 즉, 위험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개인은 특정 사안을 얼마나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아동빈곤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위험 인식의 관점과 맞물려 전개되어 왔다. 초기 빈곤 연구는 주로 소득이나 경제적 지표를 중심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은 빈곤을 재정적 결핍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과 소비 차원의 박탈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장하였다(Townsend, 1979; 윤태호, 2010). 특히 아동빈곤 연구에서는 주거, 식생활, 교육, 보건 등 복수 영역의 결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축적되었으며(김은주, 2015), 아동이 실제로 경험하는 생활상의 박탈을 포착하기 위해 박탈(deprivation) 개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Gordon et al.(2003)은 아동빈곤을 영양, 건강, 교육, 위생 및 주거

등 복수 지표의 결핍으로 구성된 현상으로 설명하였고, UNICEF(2011) 또한 아동권리를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차원으로 구분하면서 아동빈곤을 권리 전반의 구조적 박탈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아동빈곤을 단일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삶 전반이 위협받는 구조적 위험 상태로 재개념화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생애과정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의 구조적 조건이 이후 발달 경로를 형성하며 그 영향이 성인기까지 누적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Elder, 199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자원 수준은 아동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으며(Bradley & Corwyn, 2002; Duncan & Brooks-Gunn, 1997), 아동기는 기본적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에서 빈곤의 영향은 더욱 구조적으로 작동한다(김은주, 2015). 이처럼 아동기의 다차원적 박탈은 단기적 결핍을 넘어 장기적 발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론적 축적은 아동빈곤을 객관적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가의 문제로 확장시킨다. 동일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더라도, 개인이 이를 아동의 삶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공익적 행동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은 다양한 맥락에서 보고되어 왔으며 기부를 포함한 친사회적 행동 연구에서도 문제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은 핵심적인 선행 요인으

로 정리된다(Bekkers & Wiepking, 2011). 이는 특정 사안이 개인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으로 인식되는지가 이후 책임 판단과 도덕적 반응의 출발점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빈곤 위험 인식은 단순한 정보 이해 수준을 넘어, 아동의 삶이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총체적 평가를 포함하는 인지적 기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빈곤을 다차원적 박탈이 중첩된 구조적 위험으로 개념화하고, 개인이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가 책임귀속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책임 인식이 개인규범의 형성과 기부 효능감의 강화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기부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2) 규범활성화모형

규범활성화모형(Norm Activation Model)은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이 도덕적 판단 과정의 단계적 활성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Schwartz(1977)가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개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고, 해당 결과에 대해 자신이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나아가 특정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낄 때 친사회적 행동의도가 촉발된다고 본다(Schwartz, 1977; Stern et al., 1999). 즉, 친사회적 행동은 외적 보상이나 제재보다는 개인 내부에서 활성화되는 도덕적 규범에 의해 유도된다고 Schwartz는 설명한다. 규범활성화모형은 결과인식(awareness of consequences), 책임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 개인규범(personal norm)이라는 세 가지 핵심 변인

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이 모형은 친사회적 행동 유도를 목표로 하는 경영이나 관광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활발히 쓰인 반면, 막상 그 본질에 가장 가까운 광고홍보 캠페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부족하였다.

먼저 결과인식은 특정 사회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판단을 의미하며(Schwartz, 1977; De Groot & Steg, 2009), 이는 도덕적 판단 과정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사회문제가 타인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도덕적 고려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귀속은 개인이 해당 문제의 발생 또는 해결에 대해 자신이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고 인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chwartz, 1977; Stern et al., 1999).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그 문제를 자신과 관련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전환을 포함한다. 개인규범은 특정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적 도덕적 의무감을 의미하며(Schwartz, 1977; Onwezen et al., 2013), 외부의 사회적 압력이나 주관적 규범과 구별되는 개인 내부의 도덕적 기준을 반영한다.

이 세 변인은 단계적 인과 구조를 형성한다. 즉, 사회문제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은 책임 판단을 유도하고, 책임 인식은 내적 도덕 규범을 활성화하며, 활성화된 개인규범은 친사회적 행동의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구조는 환경행동 및 공익 행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Stern et al.(1999)은 결과인식과 책임귀속이 개인규범을 통해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De Groot와

Steg(2009)는 세 변인 간 매개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Onwezen et al.(2013)은 친환경 소비 맥락에서 개인규범이 행동의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기부 행동 연구에서도 개인규범은 기부의도를 안정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Sargeant & Woodliffe, 2007; Smith & McSweeney, 2007). 국내 연구에서도 결과인식과 책임귀속이 개인규범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고은희, 2019; 정수린 외, 2025).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도덕적 규범이 형성되더라도 항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De Groot & Steg, 2009; Onwezen et al., 2013). 즉, 규범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개인규범은 행동 형성의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충분조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규범활성화모형이 도덕적 판단의 형성과정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규범이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는 심리적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개인규범 이후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매개하는 추가적 변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동빈곤 역시 공중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 인식을 넘어 결과인식과 책임귀속을 거쳐 개인규범이 형성되는 구조적 과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Duncan & Brooks-Gunn, 2000). 동시에 개인규범이 활성화된 이후에도 실제 기부의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부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효능감 인식, 즉 기부 효능감이 추가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빈곤과 같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사회문제의 경우 개인은 도

덕적 의무감을 느끼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인지적 평가를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규범은 기부 효능감을 활성화하는 선행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활성화모형의 기본 구조에 근거하여 아동빈곤에 대한 결과인식과 책임귀속이 개인규범을 통해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되, 개인규범이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기부의도로 이어지는 연쇄매개 구조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규범-행동 간 간극을 보완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규범활성화모형의 적용 범위를 아동빈곤 기부 맥락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3) 기부 효능감

효능감(efficacy)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믿는 수행 신념(perceived capability)을 의미한다(Bandura, 1997, 2001).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이다(Bandura, 2001). 이때 효능감은 행동의 도덕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행동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고 그 수행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이다(Bandura, 1997; Gist & Mitchell, 1992). 이러한 수행 신념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자신감과 과업 수행 가능성 판단을 포

합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김아영, 2004).

사회인지이론은 효능감이 행동 선택, 노력의 강도, 그리고 행동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Bandura, 1997).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그 행동을 선택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실패 상황에서도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작동 원리는 국내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확인되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예방 행동의도가 강화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구윤희·노기영, 2018; 장정현·심재철, 2013). 즉, 효능감은 태도나 규범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행동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조건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효능감의 역할은 친사회적 행동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Kaiser와 Shimoda(1999), Bamberg와 Möser(2007)는 개인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이나 공익적 행동 수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 경우 행동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효능감은 태도·규범 인식과 행동 간의 간극을 설명하는 인지적 기제로 기능한다.

기부 맥락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자선 기부 연구는 개인이 자신의 기여가 실제 도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기부의도가 강화된다고 보고한다(Bekkers & Wiepking, 2011; Sargeant & Woodliffe, 2007). 특히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기부 의사결정은 더욱 강

화된(Cryder, Loewenstein, & Seltman, 2013). 이는 기부 행동이 단순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행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기반하여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감이나 도덕적 책임감과 같은 정서적 반응만으로는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가치-신념-규범(Value-Belief-Norm) 이론은 도덕적 감정과 규범 인식이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설명하지만(Stern, 2000), 실제 행동의 실현 여부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지에 달려 있다(Bandura, 1997). 이는 도덕적 인식이 형성되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경우 행동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부 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기부 행동이 아동빈곤 문제 완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확신으로 정의한다. 이는 효능감을 수행 가능성과 결과 기대를 포함하는 신념으로 규정한 Bandura (1997; 2001)의 논의를 기부 맥락에 적용한 것이다. 이 개념은 정치적 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신념으로 정의한 연구 흐름과도 이론적 연속성을 가진다(강수영, 2013).

이러한 정의는 규범활성화모형의 이론적 구조와도 구별된다. 규범활성화모형에서 개인규범은 특정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적 도덕적 의무감을 의미한다(Schwartz, 1977). 이는 행위의 당위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며, 자신의 행동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수행 가능성 판단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다(De Groot & Steg, 2009). 반면 기부 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영향력 인식에 초점을 둔다(Bandura, 1997). 따라서 ‘기부해야 한다’는 규범 판단과 ‘내가 하는 기부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효능감 판단은 이론적으로 구별된다.

아동빈곤과 같은 구조적 사회문제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 아동빈곤이 개인의 단발적 개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인식될수록, 개인은 문제의 심각성과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더라도 자신의 기부가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Duncan & Brooks-Gunn, 2000). 이 경우 규범이 형성되더라도 행동의도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부 효능감을 개인규범 이후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는 인지적 매개변인으로 개념화한다. 즉, 책임귀속을 통해 형성된 도덕적 의무감으로서의 개인규범은 자신의 기부가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효능감 인식을 촉진하는 선행 조건으로 작동하며, 이렇게 활성화된 기부 효능감이 최종적으로 기부의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개인규범이 기부 행동의 도덕적 당위성을 중심으로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기부 효능감은 그 당위성 인식이 실질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매개함으로써 규범-행동 간 간극을 보완하는 심리적 기제로 기능한다.

4) 기부의도

기부의도는 개인이 향후 기부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 또는 이를 실행하려는 주관적 의향을 의미하며, 친사회적 행동 연구에서 핵심적인 결과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Ajzen, 1991; Armitage & Conner, 2001).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선행 요인으로 간주되며(Ajzen, 1991), 이러한 전제는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 계열 연구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Ajzen, 1985; Fishbein & Ajzen, 1975). 국내 기부 연구에서도 기부의도는 실제 기부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종속변수로 다루어져 왔다(이정기 · 정은정, 2011; 차동필, 2012).

그러나 기부의도는 일반적인 친사회적 행동 의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설명되기 어렵다. 기부는 금전적 비용을 수반하고, 행동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개인에게 환원되지 않으며, 그 효과가 간접적 ·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Bekkers & Wiepking, 2011). 국내 연구에서도 기부는 친사회적 · 윤리적 행동으로 정의되면서도(박종철 · 이용운, 2012), 공감, 동정심, 죄책감, 사회적 책임감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강하게 개입하는 행동으로 논의되어 왔다(주경희 · 김지윤, 2015; 차문경 · 이유재, 2014). 이는 기부의도가 단순한 태도나 호의적 인식의 연장이 아니라, 비용을 감수할지 여부를 포함한 판단 과정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기부의도는 규범활성화모형에서 도덕적 판단의 결과로 설명되어 왔다. 규범활성화모형에 따르면 문제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과 책임귀속을 통해 개인규범이 활성화되며, 이는 친사회적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Schwartz, 1977). 이러한 경로

는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고(Stern et al., 1999; Bamberg & Möser, 2007), 기부 맥락에서도 개인규범이 기부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Sargeant & Woodliffe, 2007; Smith & McSweeney, 2007).

한편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국내 연구들에서도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감이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기 · 정은정, 2011; 차동필, 2012).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도덕적 규범이나 집단 규범을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Armitage & Conner, 2001; 차동필, 2010). 이는 기부의도가 단순한 사회적 압력의 결과라기보다 도덕적 당위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이나 규범 인식만으로는 기부의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나 구조적 빈곤과 같은 장기적 사회문제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의도가 형성되지 않는 현상이 보고되었다(Cameron & Payne, 2011). 이는 기부의도가 ‘해야 한다’는 규범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개인은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며, 이러한 인식이 결여될 경우 문제 인식이나 도덕적 의무감이 오히려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Basil, Ridgway, & Basil, 2006; Cameron & Payne, 2011).

따라서 기부의도는 도덕적 규범에 의해 촉발

되지만, 그 규범 인식이 자신의 기부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효능감으로 이어질 때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복합적 행동의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Bekkers & Wiepking, 2011). 특히 아동빈곤과 같이 개인의 단발적 개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는 개인이 도덕적 의무감으로서의 개인규범을 형성한 이후에도 자신의 기부가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Duncan & Brooks-Gunn, 2000). 이러한 맥락은 기부 의도가 개인규범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되, 기부 효능감이 그 과정을 매개함으로써 규범 인식이 실제 행동의도로 전환되는 심리적 경로가 완성됨을 시사한다.

3. 연구모형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책임귀속을 거쳐 개인규범을 활성화하고, 개인규범이 기부 의도로 이어지는 규범활성화모형의 간접 경로를 기본 구조로 설정한다. 이는 아동빈곤에 대한 인식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전환되기보다는 도덕적 판단 과정을 경유하여 행동의도로 이어진다는 규범활성화모형의 핵심 가정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개인규범이 형성된 이후에도 행동의도의 전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한다. 도덕적 의무감으로서의 개인규범은 자신의 기부가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활성화하며, 이렇게 형성된 기부 효능감이 최종적으로 기부 의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는 규범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의도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보완적 경로로서, 도덕적 의무감이 행동의 실효성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기부 의도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반영한다(Bandura, 2001; Basil et a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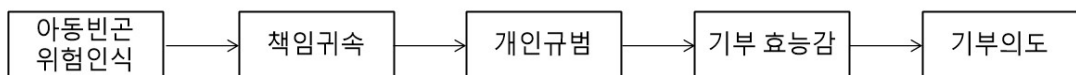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책임귀속을 거쳐 개인규범으로 이어지고, 개인규범이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기부 의도로 연결되는 연쇄매개 구조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가설 1. 아동빈곤 위험 인식은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연쇄매개효과를 통해 기부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그림 1〉 연구모형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내 온라인 패널 기반 설문기관인 서베이지(Surveasy)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에 앞서, 응답자에게 아동빈곤의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한 후 본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문항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설명은 아동빈곤을 건강·영양, 교육·학습 환경, 주거·위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로 이해하는 국제기구의 정의에 근거하였다(Gordon et al., 2003; UNICEF, 2011).

설문 문항은 아동빈곤 위험 인식,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 기부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측정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개념 정의와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총 204부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7.0을 이용해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기술 통계 및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이후 AMOS 23.0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연쇄매개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20,000회 반복 추출을 기반으로 수행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2)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 기부의도 총 다섯 개의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측정 도구를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을 본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아동빈곤 위험 인식

아동빈곤 위험 인식은 아동이 건강, 교육, 생활환경 등 기본적인 삶의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아동빈곤을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닌 다차원적 박탈 상태로 규정한 Gordon et al.(2003)의 다차원 빈곤 개념과 UNICEF(2011)의 아동권리 프레임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교육·생활환경 등 여러 영역의 박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일 구성개념으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Gordon et al., 2003; UNICEF, 2011, 김은주, 2015)를 바탕으로 총 9문항을 구성하였다(〈표 4〉 참조). 9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빈곤을 구조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

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책임귀속

책임귀속은 아동빈곤 문제 해결에 개인 역시 일정한 책임을 지니며, 자신의 행동이 해당 문제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규범활성화모형에서 제시된 책임귀속 개념에 근거한다(Schwartz, 1977). 환경 및 공익 행동 연구에서 활용된 Hansla et al.(2008)의 척도를 참고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표 4〉 참조), 3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개인규범

개인규범은 아동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개인의 내적 도덕 의무감을 의미한다(Schwartz, 1977). 이는 외부 규제나 사회적 압력과 구별되는 내면화된 도덕 규범으로,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Hansla et al.(2008)와 Onwezen et al.(2013)을 바탕으로 총 3문항을 구성하였으며(〈표 4〉 참조), 3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이 강함을 의미한다.

(4) 기부 효능감

기부 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기부 행동이 아동빈곤 문제 해결에 실제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효능감을 특정 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인지적 신념으로 정의한 Bandura(1997, 2001)의 이론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부 행동이 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4문항을 구성하였으며(Bandura, 1997, 2001; 강수영, 2013)(〈표 4〉 참조), 4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기부가 사회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5) 기부의도

기부의도는 향후 아동빈곤 관련 단체나 캠페인에 금전적 기부를 실행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행동의도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Cheung & Chan(2000), Knowles et al.(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표 4〉 참조), 4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향후 기부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5. 연구결과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대,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총 20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표 1>은 표본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제시한다.

2)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정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정규성 검정 결과는 <표 2>에 제시한다. 각 변수의 평균은 아동빈곤 위험 인식 5.38, 책임귀속 4.71, 개인규범 4.72, 기부 효능감 4.88,

기부의도 4.57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의 평균값이 7점 척도의 중앙값인 4점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도덕적 판단, 그리고 기부 행동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은 .16~.83 범위, 첨도의 절대값은 .23~1.02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값은 West, Finch, &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성 판단 기준인 왜

<표 1> 인구통계학적 분석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88	43.1
	여자	116	56.9
연령대	20세~29세	61	29.9
	30세~39세	40	19.6
	40세~49세	39	19.1
	50세~59세	52	25.5
	60세 이상	12	5.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6	27.5
	전문대 재학/졸업	51	25.0
	대학교(4년제) 재학/졸업	76	37.3
	대학원 재학/졸업	21	10.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4	31.4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62	30.4
	4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37	18.1
	6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22	10.8
	800만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1	5.4
	1,000만 원 이상	8	3.9
합계		204	100

<표 2>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정

변수	M	SD	최소값	최댓값	왜도	첨도
아동빈곤 위험인식	5.38	1.37	1	7	-0.83	-0.23
책임귀속	4.71	1.54	1	7	-0.32	-1.02
개인규범	4.72	1.32	1	7	-0.16	-0.74
기부 효능감	4.88	1.53	1	7	-0.29	-1.01
기부의도	4.57	1.59	1	7	-0.24	-0.97

도 절대값 2 이하, 첨도 절대값 7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측정변수는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며, 이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신뢰도 및 타당도의 검정

(1)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빈곤 위험 인식(9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70으로 나타났으며, 책임귀속(3문항)은 .934, 개인규범(3문항)은 .860, 기부 효능감(4문항)은 .952, 기부 의도(4문항)은 .963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구성개념의 신뢰도 계수는 Nunnally와 Bernstein (1994)이 제시한 기준치인 .70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모든 척도가 .86 이상의 값을 보여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2) 상관관계 분석

〈표 3〉에 제시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동빈곤 위험 인식,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 기부 의도 간에는 모두 유의수준에서 정(+)

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 및 기부 의도가 함께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책임귀속과 기부 효능감, 기부 의도 간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간 관계가 규범활성화모형과 기부 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가정과 전반적으로 일관된 방향임을 시사한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태지수(condition index)는 최대 17.96으로 기준치인 30을 하회하였고, 특정 차원에서 분산비율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3) 확인적 요인 분석(CFA)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3.0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 기부 의도의 총 5개 잠재변수가 포함되었으며, 각 구성개념은 선행

〈표 3〉 상관관계 분석

변수	아동빈곤 위험인식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	기부의도
아동빈곤 위험인식	1				
책임귀속	.645***	1			
개인규범	.646***	.758***	1		
기부 효능감	.665***	.811***	.681***	1	
기부의도	.546***	.828***	.726***	.806***	1

* $p < .05$, ** $p < .01$, *** $p < .001$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측정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측정문항의 표준화 요인적재치는 .685에서 .947의 범위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치인 .50을 상회하였다. 이는 각 문항이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빈곤 위험 인식 문항들은 .837에서 .916의 높은 요인적재치를 보여, 단일 구성개념으로서의 수렴타당도가 충분

히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잠재변수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 .964, 책임귀속 .941, 개인규범 .873, 기부 효능감 .951, 기부의도 .964로 모두 기준치인 .70을 상회하였다.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역시 각각 .718, .843, .694, .828, .850으로 나타나 모든 구성개념에서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는 측정문항들이 각 잠재변수의 분산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

<표 4> 확인적 요인 분석

변인	측정문항	λ	<i>CR</i>	<i>AVE</i>	<i>Cronbach's alpha</i>
결 과 인 식	AC1. 아동이 기본적인 영양과 식사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	.837	.964	.718	.970
	AC2. 의료·예방접종 등 필수 건강 서비스 부족이 아동에게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864			
	AC3. 아동의 신체적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낀다.	.848			
	AC4. 아동빈곤은 기본 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921			
	AC5. 빈곤 아동은 학습·발달에서 또래와 비교해 심각한 불평등을 경험한다고 느낀다.	.900			
	AC6. 아동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빈곤으로 인해 크게 제한된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본다.	.894			
	AC7. 빈곤 아동이 열악한 주거·위생 환경에서 생활하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한다.	.915			
	AC8. 아동의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우려된다.	.916			
	AC9. 생활환경의 박탈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887			
책 임 귀 속	AR1. 아동빈곤 문제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888	.941	.843	.954
	AR2. 아동빈곤은 정부나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느낀다.	.914			
	AR3. 나는 아동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923			
개 인 규 범	PN1. 나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아동빈곤을 줄이기 위한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낀다.	.685	.873	.694	.889
	PN2. 아동빈곤 캠페인을 보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양심에 거리감이 생길 것 같다.	.879			
	PN3. 아동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896			
기 부 효 능 감	DE1. 내가 기부하거나 행동하면 아동빈곤 문제 해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낀다.	.874	.951	.828	.972
	DE2. 내가 하는 작은 도움이라도 아이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947			
	DE3. 내 행동은 아동들의 생활환경이나 미래 기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33			
	DE4. 내가 기부나 후원을 하면 그 행동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896			
기 부 의 도	BI1. 가까운 시일 내에 아동빈곤 관련 단체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	.934	.964	.850	.940
	BI2.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아동빈곤 캠페인에 실제로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945			
	BI3. 주변에서 아동빈곤 관련 모금이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다.	.946			
	BI4. 나는 앞으로 아동빈곤을 돕는 조직을 기부 우선순위로 고려할 의향이 있다.	.904			

구의 측정모형이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ornell과 Larcker(1981)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은 해당 변수와 다른 변수 간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구성개념들이 이론적으로 상호 구별되는 개념임을 의미하며,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보여준다.

4.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chi^2 = 802.816$, $df = 225$, $p < .001$), 카이제곱 대비 자유도 비율(CMIN/DF)은 3.568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간명적합 기준(≤ 5)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인 CFI(.905)는 권장 기준치인 .90을 상회하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TLI(.893)는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RMSEA는 .112로 나타나 절대적합도 기준에서 권장 수준(.10 이하)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모형이 다수의 잠재변수와 경로를 포함한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RMSEA와 χ^2 지표가 자유도와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모형 적합도가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적합도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의 구조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개별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 그리고 부트스트래핑 기반 간접효과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가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분석 및 해석 관행에 부합한다.

5.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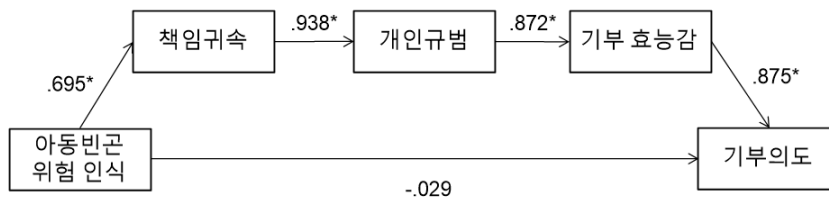
아동빈곤 위험 인식,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 기부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과 각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빈곤 위험 인식은 책임귀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95$, $p < .001$). 책임귀속은 개인규범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eta = .938$, $p < .001$), 개인규범은 기부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872$, $p < .001$). 또한 기부 효능감은 기부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875$, $p < .001$).

<표 5>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	χ^2	df	CMIN/DF	p
.893	.905	.112	802.816	225	3.568	< .001

적합기준: TLI, CFI $\geq .90$, RMSEA $\leq .10$, CMIN/DF ≤ 5

※ 주: χ^2 검정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2〉 표준화된 구조방정식모형 경로계수를 포함한 연구모형

〈표 6〉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비표준화 계수(B)	95% CI		p
		BootLLCI	BootULCI	
아동빈곤 위험 인식 → 책임귀속 → 개인규범 → 기부 효능감 → 기부의도(ind)	.607	.396	.797	< .001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의 순차적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기부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497$). 한편,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9$, $p = .660$). 이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기부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책임귀속을 출발점으로 개인규범과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0회 재표집을 실시하여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

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기부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ind)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607$, 95% CI [.396, .797], $p < .001$). 해당 신뢰구간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아 순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기부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책임귀속을 출발점으로 개인규범과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아동빈곤 문제를 인식할수록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귀속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인 개인규범을 강화하며, 나아가 기부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부 효능감을 높여 최종적으로 기부의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심리적 경로가 작동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6.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기부의도에 이르는 심리적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을 포함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빈곤 위험 인식은 기부의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책임귀속과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을 경유하는 매개적 과정을 통해 기부의도와 연결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빈곤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태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심리적 단계를 거쳐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아동빈곤 위험 인식은 책임귀속과 정적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다시 개인규범과 기부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였다. 또한 개인규범은 기부 효능감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기부 효능감은 기부의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 연계된 구조 속에서 기부의도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아동빈곤 위험 인식은 책임귀속과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연쇄적 매개 경로를 통해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쇄매개 구조가 경험적으로 지지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동빈곤 위험 인식과 기부의도 간 직접적인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체 경로 수준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기부의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매개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책임귀속과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을 거치는 연쇄적 매개구조를 통해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위험 인식과 행동 의도 간 관계가 단일 경로가 아닌 다층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 연구의 함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빈곤 위험 인식이 기부의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부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 구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의도 형성은 단일 요인이 아닌 책임 인식을 출발점으로 도덕적 의무감과 행위의 효과성 인식이 단계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메커니즘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규범활성화모형을 아동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 맥락에 적용하여, 위험 인식이 책임귀속과 개인규범을 거쳐 기부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친사회적 행동 연구를 확장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적 기여는 개인규범 이후 기부 효능감이 추가적으로 작동하는 순차적 매개 구조를 규명한 데 있다. 기존 연구들이 도덕적 의무감으로서의 개인규범 형성에 주목해 왔다면, 본 연구는 개인규범이 형성된 이후에도 행동 의도로의 전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이 실제 변화를 만

들어낼 수 있다는 효능감 인식이 결합될 때 비로소 기부의도가 강화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에서 규범적 요인과 효능감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기부 행동의 심리적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아동빈곤 관련 기부 캠페인 및 공익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도덕적 책임을 환기하는 메시지만으로는 기부의도를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책임귀속과 개인 규범을 활성화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규범적 인식만으로는 행동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익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부 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광고 커뮤니케이션이 수용자의 행동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공익 캠페인은 단순한 감정 자극이나 문제의 심각성 지적을 넘어서, 기부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실효성을 인지시키는 전략적 메시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용자를 수동적인 감정 반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결과 예측과 효능감 판단을 통해 행동을 결정하는 능동적 주체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형성된 인식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위험 인식과 책임

귀속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시간대별 과정이나 인과관계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부 효능감을 중심 변수로 설정한 확장 모형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 유형이 효능감 인식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감이나 연민과 같은 정서적 요인을 통합한 연구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실험 연구 및 중단 연구 설계를 활용하여 책임귀속 프레이밍과 함께 효능감을 조작한 메시지가 인식 변화와 행동 의도 형성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 역시 의미 있는 확장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수영. (2013). 정치적 자기효능감 척도(PSES) 제작 및 타당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57(3), 294-323.
- 고은희. (2019). 호텔 이용 고객의 친환경 행동의도 결정 과정 연구: 규범 활성화 모델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8(7), 37-56.
- 구윤희, 노기영. (2018). 자기효능감과 낙관적 편견이 유방암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구논총*, 34(2), 73-109.
- 김경준. (2026). 아동·청소년기 다차원적 박탈경험이 초기 성인기 정신 건강에 미치는 통시적 영향. *사회과학연구*, 37(1), 299-318.
- 김미숙, 김은정. (2005).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후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5-40.
- 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6(1), 1-38.
- 김영옥. (2014). 위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은주. (2015). 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아동빈곤: 새로운 지표의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사회정책*, 22(3), 105-137.
- 노연희, 이민영. (2022).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수준과 자원동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과실천*, 8(1), 129-170.
- 박종철, 이용운. (2012). 소득수준과 자아해석 유형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경영연구*, 14(2), 107-124.
- 손원익, 박태규. (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재정포럼*, 145, 67-70.
- 윤고은. (2019, 4, 23.). 기부자 57% "사용내역 몰라"...기부 안하는 이유 61% '불신'.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2151600004>
- 윤태호. (2010).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상황과 복지*, 30, 49-77.
- 이정기, 정은정. (2011). 20대의 기부의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텔레비전 장르별 시청량, 가치성향,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0, 173-205.
- 장정현, 심재철. (2013).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조절하는 낙관적 편견의 간접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7(1), 111-137.
- 정수린, 주남, 호규현, 박소윤. (2025).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규범활성화모형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통합 적용 및 문화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7(1), 151-199.
- 차동필. (2012). 대학생의 현금 기부 의도 결정 요인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6(3), 233-255.
- 차문경, 이유재. (2014). 노스텔지어의 유형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29(5), 23-4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n (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 11-39). Springer.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Bamberg, S., & Möser, G. (2007). Twenty years after Hines, Hungerford, and Tomera: A new meta-analysis of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pro-environmental behaviou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7(1), 14-2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26.
- Basil, D. Z., Ridgway, N. M., & Basil, M. D. (2006). Guilt appeals: The mediating effect of responsibility. *Psychology & Marketing*, 23(12), 1035-1054.

- Bekkers, R., & Wiepking, P. (2011).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f philanthropy: Eight mechanisms that drive charitable giv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0(5), 924–973.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Sage.
- Cameron, C. D., & Payne, B. K. (2011). Escaping affect: How motivated emotion regulation creates insensitivity to mass suffe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1), 1–15.
- Cheung, C. K., & Chan, C. M. (2000). Social-cognitive factors of donating money to charity, with special attention to an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2), 241–253.
- Cryder, C. E., Loewenstein, G., & Seltman, H. (2013). Goal gradient in help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6), 1078–1083.
- De Groot, J. I. M., & Steg, L. (2009). Morality and prosocial behavior: The role of awareness, responsibility, and norms in the norm activation model.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9(4), 425–449.
- Duncan, G. J., & Brooks-Gunn, J. (Eds.).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Elder, G. H., Jr.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1), 4–15.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ist, M. E., &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 Gordon, D., Nandy, S., Pantazis, C., Pemberton, S., & Townsend, P. (2003). *Child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Policy Press.
- Hansla, A., Gamble, A., Juliusson, A., & Gärling, T.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awareness of consequences, environmental concern, and value orienta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1), 1–9.
- Kaiser, F. G., & Shimoda, T. A. (1999). Responsibility as a predictor of ecological behaviou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9(3), 243–253.
- Knowles, S. R., Hyde, M. K., & White, K. M. (2012). Predictors of young people's charitable intentions to donate money: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9), 2096–2110.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McGraw-Hill.
- OECD. (2023).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statistics*. OECD Publishing.
- Onwezen, M. C., Antonides, G., & Bartels, J. (2013). The norm activation model: An exploration of the functions of anticipated pride and guilt in pro-environmental behaviou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9, 141–153.
- Sargeant, A., & Woodliffe, L. (2007). Building donor loyalty: The antecedents and role of commitment in the context of charity giving.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18(2), 47–68.
- Schwartz, S. H. (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pp.

- 221-279). Academic Press.
- Slovic, P. (1992). Perception of risk: Reflections on the psychometric paradigm. In S. Krimsky & D.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 (pp. 117-152). Praeger.
- Smith, J. R., & McSweeney, A. (2007). Charitable giving: The effectiveness of a revised theory of planned behaviour model in predicting donating intentions and behaviour.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7(5), 363-386.
- Stern, P. C. (2000). New environmental theories: Toward a coherent theory of 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56(3), 407-424.
- Stern, P. C., Dietz, T., Abel, T., Guagnano, G. A., & Kalof, L. (1999). A value-belief-norm theory of support for social movements: The case of environmentalism. *Human Ecology Review*, 6(2), 81-97.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UNICEF. (2011). *Child poverty and inequality: New perspectives*. UNICEF.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Who Responds to Suffering? A Study of Donation Intentions for Child Poverty Based on the Extended Norm Activation Mode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onation Efficacy

•Hayeong Song*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Integrated Master's-Doctoral Program

•Jayeon Lee**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perception of child poverty risk leads to donation intention, based on the Norm Activation Model in which risk perception sequentially influences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personal norms, ultimately shaping behavioral intention; specifically, the model is applied to the context of donations for children in poverty and extended by incorporating donation efficacy as an additional mediating variable, thereby proposing and empirically testing a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 in which responsibility attribution, personal norms, and donation efficacy operate sequentiall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N = 204), and the mediating effec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child poverty risk significantly predicted donation intention through a sequential pathway involving responsibility attribution, personal norms, and donation efficacy, indicating that risk perception activates responsibility attribution, which fosters personal norms, and these norms in turn lead to an increased perception that one's donation can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donation efficacy), ultimately strengthening donation inten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as proposed by the Norm Activation Model, risk perception does not directly lead to behavior but enhances donation intention when mediating variables are activated in a stepwise manner, and in particular demonstrates that efficacy perception functions as a critical antecedent of donation inten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Norm Activation Model is applicable in the context of charitable giving and contributes theoretically by extending the model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sequential mediating role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personal norms, and donation efficacy, while also offer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donation campaign communication 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not only fostering normative awareness but also enhancing efficacy perception through strategic messaging.

Keywords: Child poverty, Donation intention, Norm Activation Model,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Personal norms, Donation efficacy

*First Author (oh0404ok@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lee22@hanyang.ac.kr)